

渤海國志長編

上

24, 21
130
中華文史叢書之五十五
遼陽金氏千華山館刊本影印
王 有 立 主 編

渤海國志長編

(一)

清、金毓黻撰

華文書局股份有限公司印行

序

新羅인들이 北國으로 불러왔던 渤海는 高句麗 故土의 대부분을 수복하여 무려 二百餘年 동안 南쪽의 新羅와 함께 南北으로 對峙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歷史는 三國時代에 뒤이어 南北國時代를 出現시켰던 것이다.

三國史記以來 渤海를 아주 忘却했거나 附庸視해오던 우리나라 歷史책들의 不當性을 깨닫고 渤海史에 깊은 關心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實學時代로부터이다. 柳得恭이 渤海考에서 南北國說을 提唱하여 三國時代史의 뒤에 南北國時代史를 따로 엮을 것을 力說하였고 韓致滌이 海東釋史에서 渤海를 高句麗·百濟·新羅·高麗와 同一比重으로 다루어 놓은 것 등이 그 예이다. 愛國啓蒙時代에 이르러 強烈한 民族的 自覺과 함께 渤海史는 우리나라 史家들의 「歷史敘述에 더욱 큰 比重을 차지해왔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日帝官學者들은 植民地 民族分裂政策에 便乘하여 渤海는 물론, 나아가 高句麗까지 우리나라 歷史에서 分離시켜 놓았다. 그들은 「滿洲史」라는 虛像의 歷史圈을 멋대로 만들어서 그 속에 高句麗·渤海를 넣음으로써 우리 歷史와는 완전히 斷系統에 屬한 것으로 處理하였다. 뿐만 아니라 高句麗와 渤海와의 血胤關係도 意識의 으로 否定하려 하였다.

最近 우리 國史學은 民族主体性的 確立과 더불어 植民地 史學의 殘滓를 清算하여 새로
은 民族史學의 成長과 發展에 拍車를 더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渤海史에 對한 연구는
우리 史學徒에게 負荷된 重要 課題의 하나이며 渤海關係 文獻의 整理와 普及은 우리 學
界의 時急한 要請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번 太學社에서 내는 이 책은 遼陽金氏 千華山館本인 渤海國志長編을 影印한 것이다.
遼陽金氏는 곧 이 책의 著者인 金敏叡의 一家를 뜻한다. 遼陽地方에 金氏가 많이 살고 있
는 것은 알려져 있고 있지만 金敏叡에 관하여 우리는 그 家系와 經歷을 자세히 아는 바 없
다. 한때 그는 滿洲 東北大學에 講義를 맡고 있었으며 뒤에 奉天에서 博物館長을 지내거
도 했다고 한다(李龍範 教授에 依함). 그는 文章에 매우 條暢하고 敘述에 能하다. 이 長
編이 그의 千華山館叢著의 하나인 것으로 미루어 그는 많은 著作을 남긴 것 같다. 現在
우리는 그의 다른 著作에 接할 수 없지만 그의 學者의 力量은 이 長編 한 가지만으로 충
분히 保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長編은 그가 一九三七년에 完成하여 出刊한 것으로, 渤
海國의 興亡과 渤海遺民의 起伏 遷着에 關한 文獻史料集 내지 研究書籍으로서 그 分野에
있어서 劃期的 業績이 되는 것이다.

長編이란 名稱은 資治通鑑長編등의 前例도 있거니와 金敏叡은 1919年(民國八年)

에 나온 率賓 唐晏의 渤海國志를 藍本으로 하여 거기에 약간 体裁를 달리하고 다시 豐富한 徵引을 加하여 만든 것이므로 長編이라고 한 것이다. 이 長編의 構成을 보면 前志 2卷 正志 15卷 後志 3卷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별도로 補遺와 附錄이 붙어 있는데, 前志 2卷은 總略上下로써 中國·韓國·日本 등 諸文獻에서 渤海에 관한 모든 記錄을 搜羅 包括하여 基本資料를 삼은 것이고, 後志 3卷은 文徵·叢考·餘錄으로 文徵은 渤海關係 詩文들을 모은 것이고 叢考·餘錄은 著者 自身の 研究論攷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前志와 後志를 앞뒤로 끼고 있는 正志 15卷은 傳統的 史體에 따라 紀 2卷(世紀·後紀) 表 4卷(年表·世系表·大事表·屬部表) 傳 5卷(宗臣列傳·諸臣列傳·士庶列傳·屬部列傳·遺裔列傳) 考 4卷(地理考·職官考·族屬考·食貨考)으로 이 책의 中心部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 長編의 價値의 所在은 이미 内外學者間의 定評이 있는 바와 같이 著者 自身の 研究論攷에 해당하는 叢考 그것이다. 叢考의 내용은 釋義·明例·考異·存疑·正誤·互證의 六例에 立脚하여 百餘種의 文獻을 檢討 批判하고 自家見解를 밝혀 놓은 것이다. 이 叢考에서 未盡한 것을 餘錄으로 補充하였고 끝에 가서 다시 補遺와 附錄을 붙여 그 補完에 힘을 다하였다.

率賓 唐晏과 遼陽 金敏叡은 모두 滿洲系 人士이다. 率賓은 渤海時代의 率賓府(吉林의

綏芬)를 뜻하는 것이며,遼陽은渤海遺民의 고향은緣故地이다。唐·金兩氏が渤海史를 다루게 된 것은 결코偶然이 아닐 것이다。따라서 그들은日帝官學者들과는態度가 상당히 다르다。이長編은渤海建國者에 관한 문제를論하면서 특히叢考에서大祚榮이高句麗出身임을 분명히 하였고渤海文化를高句麗文化의繼承으로 설명하였다。渤海의踰年紀元法을新羅의先例로써引證하여新羅文化와의近親性を示唆하기도 하였다。

그러나唐·金兩氏는 모두漢化된人物들이다。그들의意識은 모두中國本位로 되어 있다。따라서 그들의渤海觀에는 많은限界가 있으며理論上の矛盾도 많다。뿐 아니라 우리나라 文獻의 引用에도 不足한點을 감출 수 없다。특히新羅時代의渤海에 관한 기록이 소홀하게 되어 있다。三國史記新羅本紀에北國에使臣을 보냈다는 두차례의 기록이看過되었을 뿐 아니라崔致遠의遺文은 전혀引用되어 있지 않다。「唯彼句麗、今爲渤海」(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狀)「知昔之句麗、即今之渤海」(與禮部裴尚書狀)「高句麗殘孽類聚北依太白山下、國號渤海」(上太師侍中狀) 등이 모두貴重한史料인데 이것을 빠트렸고大祚榮이新羅의大阿冲의位階를 받았다는事實도海東釋史에서引用하면서 그것이崔致遠의「謝不許北國居上表」에 있는 것임을 몰랐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渤海史를本格的으로연구하게 되겠거니와 그것은「滿洲史」가 아님은 물론

론、막연히 東洋史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의 歷史—南北國時代史로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時期에 이 渤海國志長編이 널리 學界에 利用되게 된 것은 慶賀할 일이며 우리나라 學者들의 손에서 그 學問的 成果가 批判的으로 攝取되는 同時에 그 限界性이 우리 民族史의 立場에서 훌륭히 克服될 수 있을 것이다。

1977년 3월 29일

栖碧山莊에서

李 佑 成

渤海國志
長編

謹庵屬題

黃侃



遼陽金氏千
華山館叢著

渤海國志長編敘例

渤海立國始自唐武后訖於後唐明宗享祚二百二十九年幾與李唐相終始稱爲海東盛國洵不誣矣新唐書藝文志著錄張建章渤海國記三卷特以久佚無由窺見舊唐書北狄傳敘渤海事略具始末而新書載王諡年號輿地職官食貨多爲舊書所無蓋采自張氏之書此外則冊府元龜暨扶桑古籍記朝聘事差詳他書所載亦無慮若干事遼代遼東郡縣多襲渤海舊名具載遼史雖泰半移置而名稱係屬則大致可考依此諸書尋端竟緒加之條理亦一楚楚可觀之作矣不佞曩考遼東輿地間及渤海因思肅慎遺族之立國規模啟於舍利盛於完顏極於愛新金清二史既有成書而渤海一國之史尙付闕如竊以病諸嗣聞率賓唐元素司馬著有渤海國志四卷深喜其

先得我心亟購而讀之覺其取材未富立證尙疏非吾意中之
渤海國志也前歲鍾君慈盦爲不佞言黃申甫太守亦撰有是
書屬其借鈔久久不得歲月荏苒幸值身閒發篋陳書正在今
日乃取嚮所涉覽者比而次之得二十卷書仍唐氏舊名而繫
以長編二字則蘄春黃師季剛之所命也正志略分四目曰紀
曰表曰傳曰考體亦略同唐著改志爲考避大名也志前冠以
總略明所自也志後附以文徵叢考餘錄恣詳說也不佞此著
壹遵史體書法稱謂略具翦裁幸較舊志稍爲恢廓非後人之
果愈前人也渤海故疆半所親歷聞見較確一也新著日富考
辨彌精取材自易二也然知人則易自知實難安知不佞自謂
爲恢廓者非他人目爲疏略者乎謹就所知具錄於簡旣竭吾
才未敢自信若夫整齊條理犁然有當以成一國之史正有待

於方聞此亦命名長編之微旨也撰集之例彙括如左

渤海遺事散見羣籍有國之日則詳於諸臣朝聘之事國亡之後則詳於遺民遷徙之迹其他則所紀至略本編就可知者依次撰集稍得總理其所不知壹從蓋闕

本編用別史之例故立紀表傳考四體共得十有五卷是爲正志別撰前志二卷後志三卷物具規模未爲完作

正志之紀表傳三者略加整齊使就條理而不注其所出用史例也惟諸考不然既具正文復加案語渤海典章十佚八九本編就可知者述之始終條理端資詳說命名曰考亦此意耳

本編以總略冠於志前文徵叢考餘錄繫於志後此所以爲長編也總略文徵皆正志所從出叢考以明異同餘錄以槩闕佚亦本編所應具既名長編不厭求詳不足於此而再加整齊之

竊病未能敬俟後賢

本編以敘次渤海民族興廢遞嬗之迹爲主故於末王降遼之後繼以東丹於宗臣諸臣士庶屬部列傳之外兼記遺裔大氏享國二百二十有九年而本編所敘乃至四百餘年甄明始末備於一編題曰渤海國志實渤海民族志也

唐氏舊志壹依史文逐錄直同鈔撮又用唐梁紀年殊乖史體本編以渤海諸王紀年渤海亡後則用東丹征伐貢聘俱有內外之分如此分疏史例乃正

記爲傳考之綱故宜年經月緯祇記大事以簡爲貴若傳若考則不厭其詳若表則以便尋檢補闕遺也本編於渤海大事分年纂集有月日可考者並繫以某月干支其不能確定爲某年者則別爲說以明之

原
书
缺
页

原
书
缺
页

渤海國志長編總目

卷一	總略上	十一
卷二	總略下	一五七
卷三	世紀	二五三
卷四	後紀	二八九
卷五	年表	三〇一
卷六	世系表	三二七
卷七	大事表	三三七
卷八	屬部表	三六五
卷九	宗臣列傳	三七三
卷十	諸臣列傳	三九一
卷十一	士庶列傳	四四九

卷十二 屬部列傳 四五三

卷十三 遺裔列傳 四五九

卷十四 地理考 五四九

卷十五 職官考 六四九

卷十六 族俗考 六九九

卷十七 食貨考 七四五

卷十八 文徵 七九五

卷十九 叢考 九〇七

卷二十 餘錄 一〇三